

대덕벤처, 무역의 날 '수출탑' 대거 수상

빛과전자 3천만불 수출탑 등 총 14개사 수상



지 단달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대덕밸리 중소·벤처기업들이 무더기로 '수출탑' 수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기업들은 내수부진 등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관련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금번 무역의 날 수출탑을 받은 대덕밸리 중소·벤처기업은 모두 14개사로 그중 3000만불 수출탑 수상기업만도 대덕밸리내 총 3개 기업에 달한다. 지역의 대표적 수출기업인 빛과전자(대표 김홍만)를 비롯해 아이디스(대표 김영달)와 오디티(대표 이일) 역시 3000만불 수출탑을 각각 수상하였다.

2000만불 수출탑에는 중소기업 한일(대표 박은용)이, 1000만불 수출탑에는 전자부품제조업체 에스알아이텍(대표 주동근)이 거머쥐었으며, C.H산업(대표 박성규)은 500만불 수출탑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덕밸리 벤처기업인 에스피에스(대표 김현준)를 비롯해 프럼파스트(대표 원재희), 코비스광학(대표 이상민), 포텍(대표 고안수), 대운테크(대표 이상식) 등은 300만불 수출탑을 각각 수상하였다. 또 100만불 수출탑은 엔지켐(대표 이완희, 이태석), 대울산업(대표 박동순), 디와이(대표 이영수)가 수상하였다.

개인포상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대표자 자격으로 아이디스 김영달 대표, 디와이 이영수 대표, 포텍 고안수 대표, 대운테크 이상식 대표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대울산업 박동순 대표, C.H산업 박성규 대표, 아이디스 이영일 대리, 한일 박완홍 대표가 각각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세계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한해였음에도 대덕밸리의 수출탑 수상기업과 수출유공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선전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신제품 신기술

네오팜, 새집 증후군 원인 물질 제거 '세이프하우스' 출시



건축자재가 내뿜는 포름알데히드 95% 이상 제거 효과

바이오 벤처기업 네오팜(대표 박병덕)은 새집증후군의 주된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세이프하우스'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건축자재에서 유출되는 포름알데히드 뿐 아니라 장롱, 서랍장, 싱크대, 차량내부의 유해물질까지 세세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시험 결과 이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농도 30ppm(일반적인 새집의 경우 0.5ppm)의 조건에서 2시간 후 95% 이상 포름알데히드 제거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지표 생물인 달팽이를 통한 비교실험으로 실제 생물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달팽이는 1ppm의 포름알데히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생체 활동력이 심각하게 둔화되나, 같은 조건의 농도에 세이프하우스를 비치한 결과 달팽이는 50분 후 정상시와 같은 왕성한 활동력을 나타냈다.

또한 이 제품은 빛이 없이도 구석구석 세세한 공간까지 비치해 두는 것만으로도 6개월의 지속력을 발휘하며, 사용이 종료된 제품은 냉장고 탈취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